

PSAT 언어논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⑤	②	⑤	⑤	③	④	②	③	⑤	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⑤	⑤	④	④	⑤	②	③	③	①
21	22	23	24	25					
②	④	①	②	③					

PSAT 언어논리 해설

1. 정답 ⑤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정보간의 연결 및 정보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정오판단 하는것

① (X) :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신라의 봉건 사대주의 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자어 이름 짓기는 고려에 와서 상류 계층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며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고려 시대에는 주자학 등 중국의 학문과 과거 제도 등의 문물 제도가 정착되면서 한자로 이름을 짓는 일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지배 계층의 한자식 이름과 일반 서민 및 노비들의 고유어 이름 짓기로 사람 이름이 양분되

었다. 상류 계층에서 한자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11대 문종 때에는 성씨 없는 선비들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율령을 반포한 것이 상류 계층에 한자어 이름이 정착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고려 개국 이후 상류 계층에 한자어 이름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류 계층의 한자어 이름 사용이 고려 개국 이후 점차 늘어났다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하류 계층의 한자어 이름 사용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①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X) :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고려 4대 왕인 광종조에 이르러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한자 성과 이름이 정착되었으며, 11대 문종 때에는 성씨 없는 선비들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율령을 반포한 것이 상류 계층에 한자어 이름이 정착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광종 때 한자 성과 이름이 없으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는지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②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③ (X) :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고려 시대의 노비의 이름 중 '만흡'이는 '만다'에서 온 이름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 시대의 하류 계층은 자식이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해 이름을 짓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류 계층의 경우 자식이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해 이름을 짓기도 했는지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③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④ (O)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고려 시대에 노비들의 이름은 가축의 이름을 그대로 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름으로 당시 노비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돌'이나 '쇠'를 가진 노비 이름은 자식이 돌이나 쇠처럼 굳고 단단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려 시대에는 가축이나 물질의 이름을 노비의 이름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X) :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왕건과 더불어 나라를 세운 고려 개국 공신들의 이름을 보면 성이 없는 이름이 더 많았는데, 이는 개국 초에는 상류 계층에서도 고유어 이름의 사용이 우세했던 것을 나타낸다.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 세력들을 규합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을 군·현 개편 작업과 함께 중신들에게 성을 하사하여 이때부터 귀족 관료들은 대부분 성을 갖게 됐다. 특히, 고려 4대 왕인 광종조에 이르러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한자 성과 이름이 정착되었으며, 11대 문종 때에는 성씨 없는 선비들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율령을 반포한 것이 상류 계층에 한자어 이름이 정착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를 통해 고려 개국 초에 상류 계층 중 성이 없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류층 전체가 한자 성을 가지지 못했는지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지문은 고려의 하류층이 한자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⑤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2. 정답 ②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각 선택지별로 제시된 정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 ① (×)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땅 없는 농민이나 임금노동자들은 운산의 금광에서 광부로 일한다고 하여 상인들에 의해 봉기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봉기군에 참여한 의도가 조선 후기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② (○) :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최고 지휘부를 구성한 이들의 신분은 양반, 무과에 급제한 무관, 평민, 몰락한 향족 등 다양하였다. 또한 최고 지휘부를 구성한 이들의 직업 역시 상인, 장사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 ③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과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흥경래의 봉기군은 1811년 12월 18일에 봉기하였으며, 용천은 이듬해 1월 3일에 점령하였다. 처음 봉기한 날로부터 용천을 점령한 날까지는 17일이 소요되었다.
- ④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서북 출신들은 조선초 이후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다. 흥경래와 함께 봉기군의 최고 지휘부를 구성한 사람들이 모두 서북 출신인지는 알 수 없다.

- ⑤ (×) :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비밀 군사 기지는 가산의 다복동에 마련되었으며, 정주성은 지방에서 동원된 관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정주성에 비밀기지가 마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정답 ⑤번

포인트 : 빈칸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8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내용 전개 흐름과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진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A견해가 옳다고 가정하면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 기준이라는 견해에 해당되므로 신명론은 A견해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B견해가 옳다고 가정하면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하게 되므로 신명론은 B견해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견해와 B견해를 모두 채택할 수 없다'이다.

4. 정답 ⑤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각 보기의 정오판단의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

- ① (×) :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진평왕이 매사냥에 폭 빠져 신하들이 걱정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신라 진평왕 재위시기에 신라에서 매사냥이 시작되었는지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② (×) :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아무 매나 매사냥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매사냥에 쓰이는 매는 새끼 때부터 사람 손에서 길들여진 것이어야 한다.
- ③ (×) :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고려 충렬왕은 매사냥을 담당하는 응방이라는 관창을 두었다. 그러나 고려 충렬왕 이전에 매사냥을 담당하는 관창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④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매에 달아 놓은 방울의 소리를 따라 신속히 가서 매를 찾는 것은 물이꾼들이다.
- ⑤ (○) :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사냥이 어디로부터 전해져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5. 정답 ③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선택지를 끊어 읽어 정보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정오판단 하는 것

- ① (○)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황열병과 쓰쓰가무시병은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을 통해 사람에게 옮는다.

- ② (○) :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좀 더 자란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경우에는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감염정도가 낮거나 또는 계절적인 특징에 따라서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말라리아에 대해 면역반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온대지방에서 열대지방으로 가는 여행자들의 거의 50%는 설사를 하는 이유는 대장균이라는 박테리아 때문이다.
- ④ (○) :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뇌말라리아에 대한 적절한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고열이 나지 않아 부모들은 감염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한다. 따라서 뇌말라리아에 대한 적절한 면역반응은 뇌말라리아 발생 시 고열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 :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많은 여행자들이 기생충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의 예방적 사용이라고 하는데,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기생충이 스스로 예방제에 적응하여 저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말라리아의 경우 약의 예방적 사용이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정답 ④번

포인트 : 빈칸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8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내용 전개 흐름과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진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 (가)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새로운 역사적 내용이나 잘못 해독한 오류가 밝혀지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자료가 발굴될 경우 역사적 사실이 풍부해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실증된다. 즉, 역사 서술의 재료인 역사적 사실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사상은 달라진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은 (보기 나)이다.

- (나) :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역사가는 현실 밖에서 인간 역사를 관조하고 음미하면서 역사상을 창조하는 초현실적, 초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이

다. 따라서 역사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세계관, 가치관, 계급적 이해관계, 정치의식, 민족의식 등 일정한 사회적 입장과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입장과 계급성이 하나의 논리적 인식 체계, 사상 구조를 갖출 때 이를 '역사관'이라 하는데, 이것이 역사가의 사유 방식, 일정한 방법과 논리를 규정하며 나아가 역사상을 질적으로 변하게 한다. 즉,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는 일정한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가의 사유방식, 일정한 방법과 논리의 차이는 역사가의 사회적 입장과 사회적 삶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은 <보기 ㄴ>이다.

7. 정답 ⑤번

포인트 : 사례 찾기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2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보기>의 사례를 지문에 등장한 개념의 설명과 비교하여 <보기>의 사례가 지문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정오판단하는 것

본문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 장애를 다루는 아동 심리학 중 하나인 대상관계 이론은 만약 부모가 자기 아이의 요구를 존중하지 않고 아이를 확대하거나 방임하면 그 아이는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대상관계 이론은 네 가지 중요한 정신 역학적 발달들에서 기인하는데 이 발달들을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발전시킨 것이 오토 쾨버그이다. 쾨버그에 따르면 분열 단계에 이르렀지만 결코 통합을 달성하지 못한 아동은 해리성 상태에 빠지고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즉, 해리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분열의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 경우라면 이러한 분열의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해리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된다.

- ㄱ (○) : 어머니가 자주 자신의 아이를 밀쳐내 어떠한 친밀감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나쁜 경험을 한 것으로, 어머니가 좋은 면 또는 나쁜 면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주 밀쳐내 어떠한 친밀감도 제공받지 못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분열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해리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 ㄴ (○) : 어머니가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면 아이는 어

머니로부터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동은 분열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해리성 상태에 빠지게 된다.

- ㄷ (○) :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부모로부터 나쁜 경험을 갖게 되고, 나쁜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의 저수지로 격리되어 애착에 대한 강렬한 요구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득 찬 관계가 초래된다. 이처럼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아동은 분열의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해리성 상태에 빠지게 된다.

8. 정답 ②번

포인트 : 핵심주장, 논지, 중심내용 도출

유사기출문제 :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15년 5급 공채 인책형 8번,
- 2015년 5급 공채 인책형 11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10번,
- 2014년 5급 공채 A책형 29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중심내용을 이끌어내는 것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각 개인이 최대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면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언급한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통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반드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언급한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언급하며 협동을 예로 든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합리적인 개인이 비합리적인 사회를 초래하는 환경문제가 만연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심을 고취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사소통과정을 원활히 하여 각 개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이다.

9. 정답 ⑤번

포인트 : 빈칸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8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내용 전개 흐름과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진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원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원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은 개념에 종속된 것일 뿐, 새로운 사유를 촉진할 수 없다. 이때의 인간의 감성은 눈앞에 있는 도형이 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그러한 상상력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어진 이미지가 개념에 합당하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에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념이 미리 주어진 상태에서 그 개념에 종속된 상상력은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⑤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정보간의 연결과 정보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판단하는 것

- ㄱ (×) : 세균에 대한 바이러스 복제 전략은 숙주세포를 파괴되게 하는 용균성 감염과 숙주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용원성 감염으로 구분된다. 지문은 용원성 감염과 용원성 감염이 바이러스 복제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ㄱ>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 ㄴ (×)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용원성 감염이다.
- ㄷ (×)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용원성 감염 단계 동안, 세포 기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같은 신호에 의해 바이러스성 단백질들은 용균성 감염 주기를 유발한다. 바이러스 DNA가 숙주세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용균성 감염이다.

11. 정답 ⑤번

포인트 : 일치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9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1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2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7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1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4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정보간의 연결 및 정보간의 관계를 꼼꼼하게 정오 판단 하는 것

- ①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식물성 섬유와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표피를 덮는 비늘 모양을 특징으로 하는 것은 양모의 특징이다. 양모를 제외한 다른 동물성 섬유들의 특징도 양모의 특징과 같은지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② (×)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과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면과 견사는 혼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면이 가지는 구김 및 수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 ③ (×)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양모 수요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의 양모 생산량은 세계 양모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모 수요가 호주산 양모 수입량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 ④ (×)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목화의 품종에 따라 면의 품질이 달라진다. 직조하려는 면직물의 종류에 따라 재배하는 목화의 품종이 달라지는지는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 ⑤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양모와 견사 모두 단백질로 주성분으로 하는데, 견사는 양모 다음으로 탄성이 우수하며 견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 중에서 가장 높은 순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누에고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견사는 양모에 비해 탄성은 떨어지나 단백질 순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정답 ⑤번

포인트 : 견해평가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3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4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4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5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2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6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6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2번

※ 한승아의 의도 : 각 견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 ① (X) :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A는 약물치료를 앞서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시술과 관련된 비용 문제이고, 치료에 대한 비용은 성폭행 수형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용은 결국 국가의 몫에 해당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A는 성충동 약물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X) :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B는 소아기호중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로써 정당화되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5년이라는 치료의 시한을 정해두기 보다는 “더 이상 치료의 필요가 없을 때까지”라고 정해두고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중간심사를 통해 그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최대 15년이라는 치료의 시한이 성충동 약물치료의 완치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X)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부터 끝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A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신체에 대한 공권력의 침투라 언급한다. 그러나 A는 소아기호중 상습성폭력이 죄질이 심한 범죄인지 언급하지 않으며, 죄질이 심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B는 소아기호중 상습성폭력범도 죄질을 떠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며, 국가는 이들을 강제적으로나마 치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B는 소아기호중 상습성폭력이 죄질이 심한지 언급하지 않으며, 죄질이 심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X) : 첫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A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치료대상군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병적인 요

인으로 인하여 자기 의지로 범죄적 행위를 조절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적 치료행위로, 그 대상 선정은 치료의 효능을 담보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다. B는 치료대상자를 선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O)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A는 신체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결과를 목표로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신체에 대한 공권력의 침투라 언급한다. B는 소아기호중상습성폭력범을 강제적으로나마 치료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소아기호중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로써 정당화된다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A와 B는 성충동 약물치료에서 외부 개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정답 ⑤번

포인트 : 가설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9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 2014년 5급 공채 A책형 15번, 2013년 5급 공채 인책형 13번

※ 한승아의 의도 : 문제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이 근거이다. 예일 대학교의 벤카트 락슈미나라야난, 키스 쉐, 로리 산토스는 실험에서 꼬리감는원숭이들에게 맛있는 사과 조각을 구입할 수 있는 토큰을 나눠 주었다. 원숭이들은 경영학개론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큰을 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금세 익혔다. 그런 다음 연구자들은 실험 방법을 교묘하게 비틀어, 원숭이들에게 사과 조각을 살 때 두 실험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1번 실험자는 원숭이에게 항상 사과 조각 한 개를 보여준 다음 토큰 한 개에 사과 조각 하나를 교환해주었다. 2번 실험자는 매번 두 개의 사과 조각을 보여준 다음 토큰 한 개에 두 조각 중 한 조각만을 주었다. 토큰 하나당 사과 조각 하나이므로 경제학에서 보면 두 거래는 어차피 똑같은 거래다. 하지만 2번 실험자는 사과 조각 두 개를 보여주고 한 조각만 주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자기가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사과 조각에 집중했다. 경제학에서 보면 1번 실험자와 2번 실험자는 똑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원숭이들은 1번 실험자와의 거래를 크게 선호했다. 인간처럼 원숭이들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했다. 이를 통해 원숭이도 인간처럼 손실을 회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진술은 ‘우리의 진화적 혈통 깊숙한 곳에 손실 회피 편향이 흐르고 있다’이다.

14. 정답 ④번

포인트 : 사례찾기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9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9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2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6번

※ 한승아의 의도 : (보기)의 사례를 지문에 등장한 개념의 설명과 비교하여 (보기)의 사례가 지문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정오판단하는 것

- ㄱ (○) :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손실회피 편향이 있으면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그 돈을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더 크게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기쁨보다는 이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내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손실 회피의 사례에 해당한다.
- ㄴ (×) :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과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을 예방할 수 없어 병이 더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말이다. 하지만 원승이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두 가지의 거래에서 손실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거래를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손실 회피 편향이 존재한다면 병이 커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커지게 된다는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 회피를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설득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병이 더 커진다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므로 해당 사례는 손실 회피의 사례라고 볼 수 없다.
- ㄷ (○) :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로또 당첨과 광우병 발병은 둘 다 그 확률이 매우 낮다. 이때 손실 회피 편향이 존재하면, 광우병이 로또 당첨과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확률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으로 인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행동할 것이다. 즉, 같은 정도의 이득과 손실을 있을 때, 이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나 손실을 보는 것을 더 크고 심각하게 생각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행동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손실회피의 사례에 해당한다.

15. 정답 ④번

포인트 : 연역논증  
유사기출문제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3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9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1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2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4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4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3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8번  
2015년 5급 공채 인책형 12번, 2015년 5급 공채 인책형 13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9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11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12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31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32번, 2014년 5급 공채 A책형 35번,  
2013년 5급 공채 인책형 19번, 2013년 5급 공채 인책형 30번,  
2013년 5급 공채 인책형 31번, 2013년 외교관후보자 인책형 11번,  
2013년 외교관후보자 인책형 19번, 2013년 외교관후보자 인책형 31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논리적 기호화

를 하는 것

윤지가 2일차 계획으로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을 논리적 기호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부호저택
  - 2) 시민당 → (타이호∧-역사거리)
  - 3) 룡산쓰예류 해상공원
  - 4) 룡산쓰 → (대부호저택 → 역사거리)
  - 5) (-시민당∨역사거리) → -예류 해상공원
1. 3)을 통해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과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
    - (1) 1)과 4)에 의해 '역사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2) 2)의 대우에 의해 '-시민당'을 이끌어낼 수 있다.
    - (3) 이 경우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 역사거리, -시민당, 대부호저택'으로 2일차 계획이 결정되며, 타이호 방문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3.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
    - (1) 5)의 대우에 의해 '시민당∧-역사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2) 2)에 의해 '타이호∧-역사거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3) 이 경우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 -역사거리, 시민당, 대부호저택, 타이호'로 2일차 계획이 결정된다.
- ① (×) :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인 경우 타이호의 방문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 ② (×) : '-룡산쓰, 예류 해상공원'인 경우 역사거리를 방문하지 않는다.
  - ③ (×) : 역사거리를 방문하는 경우 최대 4곳을 방문한다.
  - ④ (○) : '-예류 해상공원'인 경우 시민당을 방문하지 않는다.
  - ⑤ (×) : 룡산쓰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타이호를 방문한다.

16. 정답 ⑤번

포인트 : 최대 최소  
유사기출문제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3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4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1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9번,

※ 한승아의 의도 : 풀지 않고 도망기는 것

A ~ G팀에 대한 사실을 논리적 기호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D∧-E) → C
- 2) -B → (D∧A)

- 3) (BVG) → F
- 4) E → G
- 5) A ∨ B ∨ C

1. 5)에 의해 'A, -B, -C', '-A, B, -C', '-A, -B, C'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A, -B, -C

(1) 2)에 의해 'D ∧ A'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1)의 대우에 의해 '-D ∨ E'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D'가 배제되므로 'E'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4)에 의해 'G'를 이끌어낼 수 있다.

(4) 3)에 의해 'F'를 이끌어낼 수 있다.

(5) 따라서 이 경우 A, -B, -C, D, E, F, G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며, 5팀이 신청한다.

2. -A, B, -C

(1) 3)에 의해 'F'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1)의 대우에 의해 '-D ∨ E'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따라서 이 경우 -A, B, -C, F로 신청 여부가 결정되며 D, E, G의 신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D와 E중 최대 2팀이 신청하므로, 워크샵 참여를 신청하는 팀은 최대 5팀이다.

3. -A, -B, C

(1) 2)에 의해 'D ∧ A'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모순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ㄱ (○) : 워크샵 참여를 신청하는 팀은 최대 5팀이다.

ㄴ (○) : B팀이 워크샵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워크샵 참여를 신청하는 팀은 최대 5팀이므로 워크샵은 개최될 수 있다.

ㄷ (○) : A팀이 워크샵 참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B팀이 워크샵 참여를 신청한다. 이 경우 '-D ∨ E'가 참이므로 D와 E가 모두 워크샵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17. 정답 ②번

포인트 : 견해 평가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4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3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3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4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4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5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2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6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6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2번

※ 한승아의 의도 : 각 견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① (×) :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A는 고용주가 가지는 근로자의 성별 인식 차이가 노동자의 평균적인 업무능력으로 인해 형성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B는 고용주가 노동자 개인의 정확한 노동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용이 비싸고, 고용주가 남성의 평균적인 노동 생산성이 여성의 평균적인 노동생산성보다 높다고 믿으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편견 혹은 고용주가 지금까지 고용해왔던 노동자의 평균적인 업무능력을 통해 형성된다고 언급한다. 이를 통해 B는 고용주가 가지는 근로자의 성별 인식 차이가 노동자의 평균적인 업무능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봄을 알 수 있다.

② (○) :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A는 노동자 고용시 성별이 개별 노동자의 능력을 헤아리는데 드는 비용의 정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B는 성별은 개별 노동자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정보라고 언급한다.

③ (×)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마지막 문단이 근거이다. A는 고용주는 남성에게 대해 선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선호에 따라 남녀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호에 의한 차별은 시장의 경쟁이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시장이 경쟁이 약화된 상태라고 언급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차별적 고용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B는 시장의 경쟁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별적 고용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④ (×)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A는 고용주는 남성에게 대해 선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선호에 따라 남녀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한 고용주의 손해는 커지게 될 것이고, 고용주는 선호를 제거하여 노동생산성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불하거나, 상품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고용주가 경쟁적인 시장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를 가지는 경우 상품시장에서 퇴출시켜 재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지는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⑤ (×) :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B는 고용주가 노동자 개인의 정확한 노동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한 비용이 비싸고, 고용주가 남성의 평균적인 노동 생산성이 여성의 평균적인 노동생산성보다 높다고 믿으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난다고 믿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18. 정답 ③번

포인트 : 빈칸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8번,

※ 한승아의 의도 : 빈칸에 들어갈 진술이 무엇인지 단서를 찾아 파악하는 것

첫 번째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 끝에서 세 번째 문장까지는 힌두교의 암소 숭배 관습에 대해 터무니없는 것이며 스스로를 과멸시키는 행위로 여기는 서양의 평가는 인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생활의 필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힌두교의 암소 숭배 관습은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어 온 생활의 결과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특정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이다.

19. 정답 ③번

포인트 : 빈칸추론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27번,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8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6번,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5번,
-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6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1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28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7번,
-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8번,

※ 한승아의 의도 : 정보 간의 포함 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

- (1) 지름 10 $\mu$ m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 미세먼지(PM<sub>10</sub>)
- (2) (지름 2.5 $\mu$ m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흡수가 빠르고 강한 독성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입자 → 초미세먼지(PM<sub>2.5</sub>)
- (3) (PM<sub>10</sub>  $\wedge$  151 $\mu$ g/m<sup>3</sup>일 이상) → 미세먼지 지수는 매우 나쁨
- (4) (PM<sub>2.5</sub>  $\wedge$  100 $\mu$ g/m<sup>3</sup>일 이상) → 초미세먼지 지수는 매우 나쁨
- (5) 지름 2.5 $\mu$ m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wedge$  160 $\mu$ g/m<sup>3</sup>일
  - ≡ 지름 10 $\mu$ m 이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  $\wedge$  160 $\mu$ g/m<sup>3</sup>일
  - ≡ 미세먼지  $\wedge$  151 $\mu$ g/m<sup>3</sup>일 이상

따라서 (3)에 의하면 “미세먼지 지수는 매우 나쁨”이 도출된다.

- (A) (황사  $\wedge$  0~99 $\mu$ g/m<sup>3</sup>일) → 황사 지수는 좋음
  - (황사  $\wedge$  100~199 $\mu$ g/m<sup>3</sup>일) → 황사 지수는 보통
  - (황사  $\wedge$  200~399 $\mu$ g/m<sup>3</sup>일) → 황사 지수는 약간 나쁨
  - (황사  $\wedge$  400~799 $\mu$ g/m<sup>3</sup>일) → 황사 지수는 나쁨
  - (황사  $\wedge$  800 $\mu$ g/m<sup>3</sup>일 이상) → 황사 지수는 매우 나쁨
- (B) (황사지수가 약간 나쁨  $\vee$  나쁨  $\vee$  매우 나쁨)
  - (야외 활동 시 황사 마스크 착용 권장  $\wedge$  빨래 실내 건조 권장  $\wedge$  세면 자주 권장)
- (C) -야외 활동 시 황사 마스크 착용 권장
  - 따라서 (B)에 의하면 “-황사지수가 약간 나쁨  $\wedge$  나쁨  $\wedge$  -매우 나쁨”이 도출된다.
- ㄱ (×) : 미세먼지는 PM<sub>10</sub>이다. “지름 2.5 $\mu$ m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만으로는 (2)의 전건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하므로 초미세먼지인지 알 수 없다.
- ㄴ (○) : (1)~(5)에 따르면 미세먼지 지수는 매우 나쁨이므로 ㄴ은 타당하다.
- ㄷ (○) : (A)~(C)에 따르면 “(-황사지수가 약간 나쁨  $\wedge$  나쁨  $\wedge$  -매우 나쁨) → -200 $\mu$ g/m<sup>3</sup>일 이상”이므로 ㄷ은 타당하다.
- ㄹ (×) : “-야외 활동 시 황사 마스크 착용 권장”으로 “-빨래 실내 건조 권장”이 도출되는지 알 수 없다.

20. 정답 ①번

포인트 : 참거짓

유사기출문제 :

-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2번,
-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4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4번,
-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2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2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9번

※ 한승아의 의도 : 대당사각형의 모순 관계에 있는 진술을 찾아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것

- 갑 ~ 정의 진술을 논리적 기호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갑) (깍두기 볶음밥  $\vee$  치킨마요컵밥) → 에그타르트
- 을) 깍두기 볶음밥 → 부추고기순대국
- 병) 부추고기순대국 → -에그타르트
- 정) 깍두기 볶음밥  $\vee$  부추고기순대국
- 을)과 정)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모순관계이다. 따라서 ‘을)이 참, 정)이 거짓’, ‘을)이 거짓, 정)이 참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을)이 참, 정)이 거짓
  - (1) 정)이 거짓이므로 ‘깍두기 볶음밥, 부추고기순대국’과 ‘깍두기 볶음밥, -부추고기순대국’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각두기 볶음밥, 부추고기순대국 : 갑)에 의해 '에그타르트'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병)에 의해 '-에그타르트'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

(3) '각두기 볶음밥, 부추고기순대국' : 에그타르트와 치킨마요컵밥의 구매 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2. 을)이 거짓, 정)이 참

(1) 을)이 거짓이므로 '각두기 볶음밥^부추고기순대국'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갑)에 의해 '에그타르트'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치킨마요컵밥의 구매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ㄱ (o) :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추고기순대국을 구매하지 않는다.

ㄴ (x) : 을)이 참, 정)이 거짓인 경우 에그타르트의 구매여부는 결정되지 않는다.

ㄷ (x) : 을)이 참인 경우 각두기 볶음밥을 구매하지 않는다.

21. 정답 ②번

포인트 : 견해 평가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9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4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3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4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9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3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4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3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4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5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2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6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26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32번

※ 한승아의 의도 : 각 견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ㄱ (x) :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견해 A는 신체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쉽게 행위대상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아동 학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견해 B는 노인은 신체적 노화와 함께 두뇌기능도 노화되고 약화되면서 인지적인 능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점 역시 나이 어린 아동을 행위대상으로 택하게 되는 범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견해 A와 견해 B가 아동과 노인이 다른 연령에 비해 인지장애를 겪기 쉽다고 보는지는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다.

ㄴ (o) :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견해 B는 노인에게 중한 정도의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행위의 유책성을 회피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견해 C는 노인이 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학대 가해자에게 유책성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견해 B와 견해 C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학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봄을 추론할 수 있다.

ㄷ (x) :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과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견해 A는 가해행위자가 노인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보다 더 다루기 쉽다는 예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견해 C는 사회에서 노인에게 대해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견해 A와 견해 C가 노인이 생각보다 다루기 쉽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지 추론할 수 없다.

22. 정답 ④번

포인트 : 강화약화  
유사기출문제 :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3번,

※ 한승아의 의도 : 논증구조분석을 통해 논증의 전제와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글의 논지는 '다수결원칙에 따른 판단은 합리적이고 가장 믿을만한 기준이며 집단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다수결원칙은 신뢰할만한 의사결정방법이다.'이다.

① (o)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선택지 ①은 교육 수준을 판단능력의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므로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② (o) :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은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언급한다. 선택지 ②

는 다수결원칙이 위헌한 결과를 낳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므로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 ③ (○) :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은 개인이 올바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소수에 비해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인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언급한다. 선택지 ③은 소수에 비해 다수의 판단이 합리적인 확률이 높지 않다고 언급하므로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 ④ (×) : 지문은 다수결에 이끌려 다니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나태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지 ④는 지문의 논지를 약화하지 않는다.
- ⑤ (○) :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은 현대 사회에서 가치판단을 위해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각 개인이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한다. 선택지 ⑤는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므로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23. 정답 ①번

포인트 : 강화약화  
유사기출문제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3번,

※ 한승아의 의도 : 지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 ㄱ (○) : 세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근거이다. 이 지문은 가상현실 역시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이미 가상공간을 또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역시 처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가상현실을 허구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문의 논지를 약화한다.
- ㄴ (×) : 마지막 문단이 근거이다. 지문은 가상현실에서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현실 사회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절도행위가 현실에서의 금전적 손해로 연결되어 실제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문의 논지를 강화한다.
- ㄷ (×) :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이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되

고 있다는 글은 지문에서 알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지문의 논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24. 정답 ②번

포인트 : 강화약화  
유사기출문제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3번,

※ 한승아의 의도 : 1) 지문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2) 밑의 인과추론에 의해 실험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 ㄱ (×) :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지문의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능이 좋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긍정적 이미지에 의한 '정서 조건화'가 더 큰 광고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고 광고에서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지문의 논지를 강화한다.
- ㄴ (○) : 지문의 실험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펜을 이용하여 정서 조건화 광고 효과가 우월함을 보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이 고가의 제품인 경우 제품 자체의 성능에 매우 민감하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정서 조건화 광고 효과가 모든 제품에 대하여 가장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기 ㄴ>은 글의 논지를 약화한다.
- ㄷ (×) : 정서 조건화 실험에서 스크린을 통해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들을 본 사람들에게 펜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 경우에도 정서 조건화가 완료된 사람들이 성능이 부실한 펜을 선호했다면, 기존의 실험과 새로운 실험에서의 공통된 요인인 정서 조건화 절차가 부실한 펜을 고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보기 ㄷ>은 글의 논지를 강화한다.

25. 정답 ③번

포인트 : 강화약화  
유사기출문제 :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22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21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18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20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20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9년 5급 공채 가책형 40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5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6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7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38번,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4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18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20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5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6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7번,  
2017년 5급 공채 가책형 38번, 2016년 5급 공채 4책형 13번,

※ 한승아의 의도 : 논증구조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주어진 <보기>와 논증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것

- ㄱ (○) : 두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땀의 효과적인 증발을 위해서 온대지방 사람보다 팔과 다리의 길이가 몸통 길이에 비해 훨씬 길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온대지방 아이들이 한대지방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팔다리의 길이가 몸의 길이에 비해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지문의 논증을 약화한다.
- ㄴ (○) : 마지막 문단 네 번째 문장부터 끝에서 두 번째 문장까지가 근거이다. 신체가 활동하거나, 긴장하거나, 생각 하는 것은 심장활동을 평소의 편안한 상태보다 활발하게 하여 혈류를 체내 깊숙이 전달하고 체온을 상승시킨다. 열대기후에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노동을 통해 재산을 만들어 축적한다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온대지방의 사람들보다 덜 움직이고, 덜 활동한다. 온대지방인 인도 북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 열대지방인 인도 중부로 거주지를 옮긴 후 활동량을 측정된 결과 온대지방에서 활동할 때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는 것은 지문의 논증을 약화한다.
- ㄷ (×) :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근거이다. 열대지방 사람들의 경우 걸을 때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곱슬머리를 갖고 있다. 곱슬머리는 공기구멍이 많은 스펀지처럼 단열제 구실을 하고, 태양광선이 머리 피부에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 고산기후지역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사람들 중 곱슬머리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온대지방인 대만 지역의 사람들 중 곱슬머리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문의 논지와 논리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지문의 논지를 약화하지 않는다.